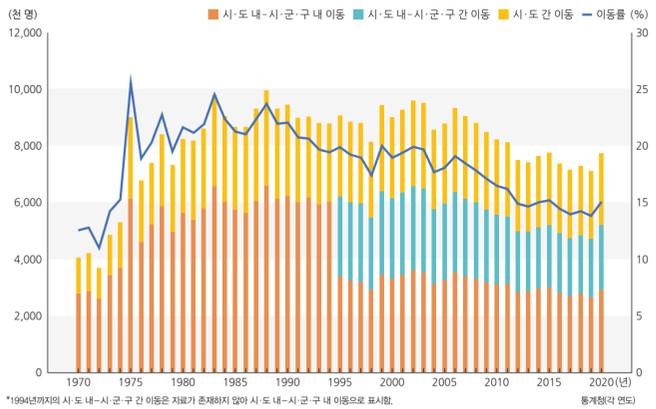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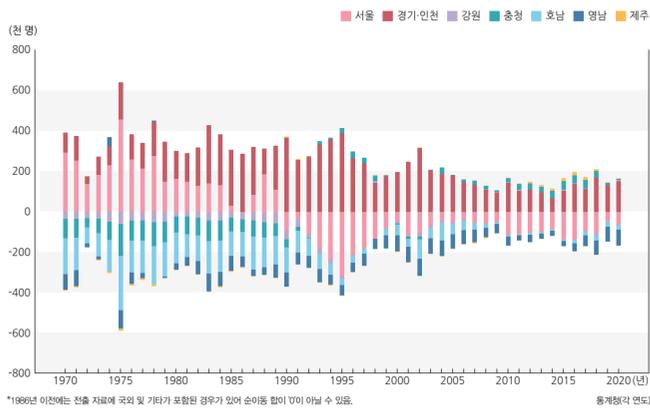
# 인구 이동

국내 인구 이동(1970-2020년)



\*1988년까지의 시·도 내·시·군·구 간 이동은 재료가 존재하지 않아 시·도 내·시·군·구 내 이동으로 표시함

지역별 순이동자(1970-2020년)



\*1986년 이전에는 전출 자료에 국외 및 기타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순이동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지역의 인구 증감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증감과 전입과 전출이라는 사회적 증감으로 설명된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고려할 때(시·도 단위에서는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05년 전남에서 최초로 기록되었으며, 2020년 현재 경기, 인천, 울산,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는 자연 감소함) 인구 이동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인구 증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인구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1975년에는 이동률이 25.5%에 달했으며, 1988년에는 997만 명의 인구가 이동하였다.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인구 이동의 총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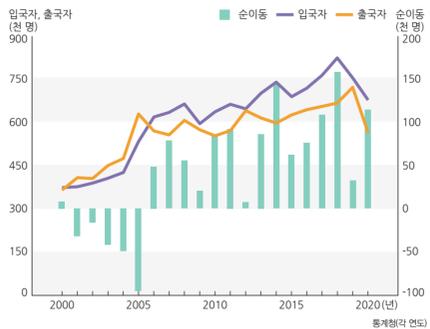
인구 이동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현재 시·도 내-시군 구 내 이동, 시·도 내-시·군·구 간 이동, 시·도 간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8%, 29%, 33%이다.

인구 이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주요 유입 지역이었으며 호남, 영남, 충청 등이 주요 유출 지역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변화가 있어 서울은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가장 많은 인구 유출 지역이 되었으며, 이미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한 호남보다는 영남의 인구 유출이 많아졌다. 한편 충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인구 유입 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기능의 충청 지역으로의 확대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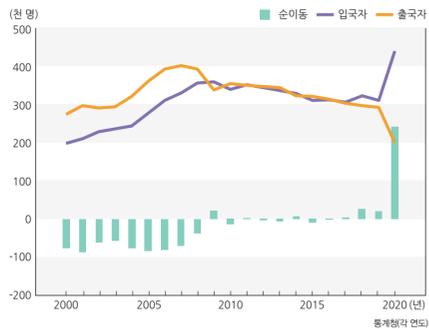
관하지 않다.

한편, 국제 이동은 내국인의 입출국과 외국인의 입출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2000년 중반까지는 출국자가 입국자 더 많았으나 그 이후 2019년까지는 입국자와 출국자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았다. 하지만 2020년 국제 이동의 양상은 2019년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COVID-19의 영향으로 내국인은 출국자와 비교해 입국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외국인도 입국자와 비교해 출국자가 월등히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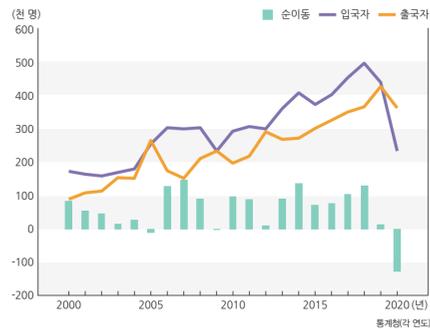
국제 인구 이동(2000-2020년)



내국인 입출국(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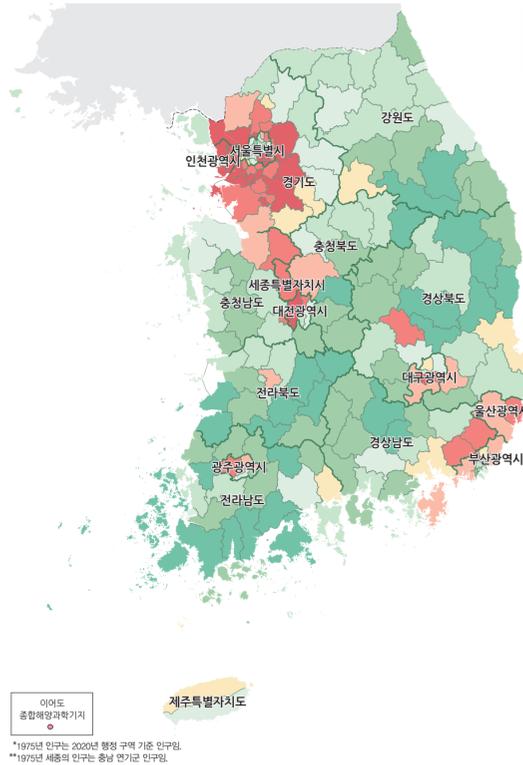


외국인 입출국(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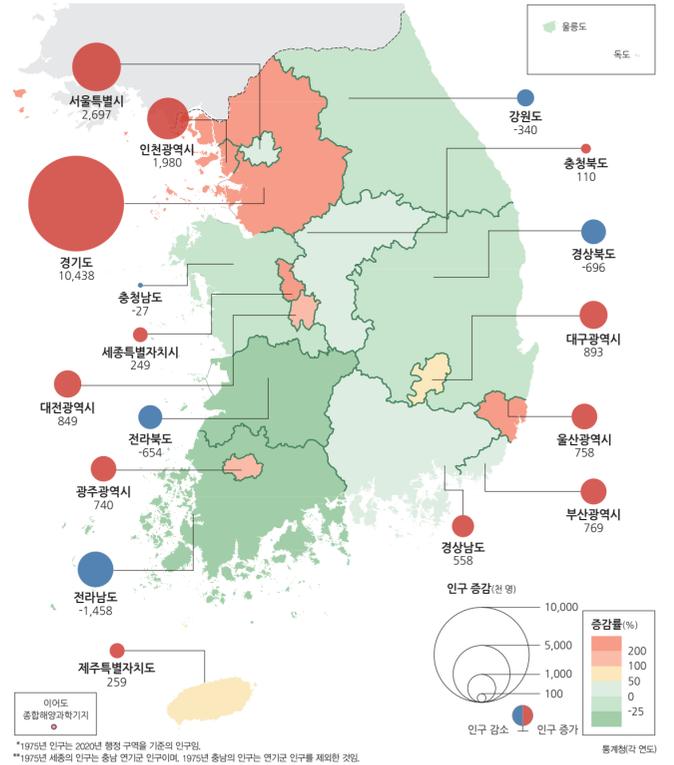
# 인구 증감

1975년 대비 2020년 시·군·구 인구증감률



\*1975년 인구는 2020년 행정 구역 기준 인구임  
\*1975년 세종의 인구는 충남 연기군 인구임, 1975년 충남의 인구는 연기군 인구를 제외한 것임.

1975년 대비 2020년 시·도 인구증감



\*1975년 인구는 2020년 행정 구역을 기준의 인구임  
\*1975년 세종의 인구는 충남 연기군 인구이며, 1975년 충남의 인구는 연기군 인구를 제외한 것임.

1975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을 이용하여 행정 구역별로 어느 정도 인구의 증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행정 구역의 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 영향을 없애기 위해 1975년 인구는 인구 총조사 인구가 아닌 2020년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1975년 인구를 사용함). 2020년 시·군·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1975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2,206%)이며, 경기도 안산시(1,728%), 인천광역시 서구(1,425%), 경기도 시흥시(1,174%), 경기도 군포시(1,076%) 순이며 수도권의 시·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78%)이며, 경북 영양군(-77%), 전북 진안군(-76%), 전남 보성군(-76%), 강원 정선군(-75%) 등 농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행정 구역 기준 229개 시·군·구 중 120개 시·군·구는 1975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74개 시·군·구는 1975년 대비 50%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고, 30개 시·군·구는 인구의 2/3 인 66.7%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인구가 증가한 109개 지자체 중 26개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국 인구 증가율인 49.3%에 미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유출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29개 시·군·구 중 146개 지자체는 인구가 유출된 지역이 된다. 인구 유출은 대도시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중심지 역시 인구가 유출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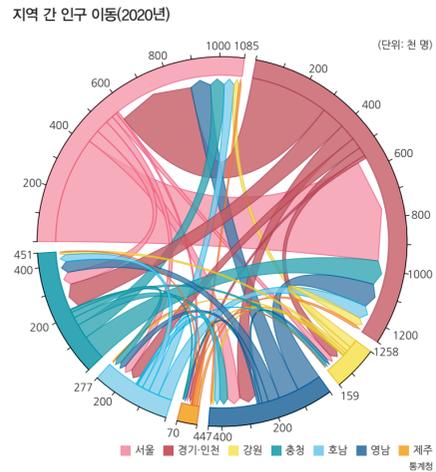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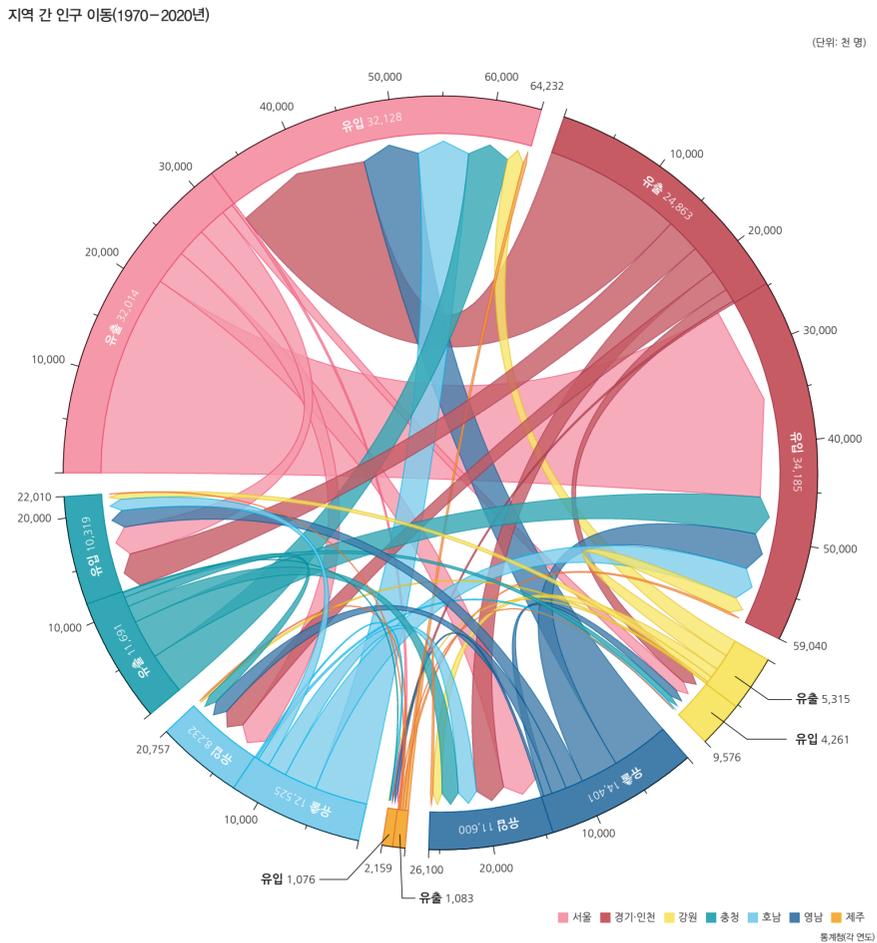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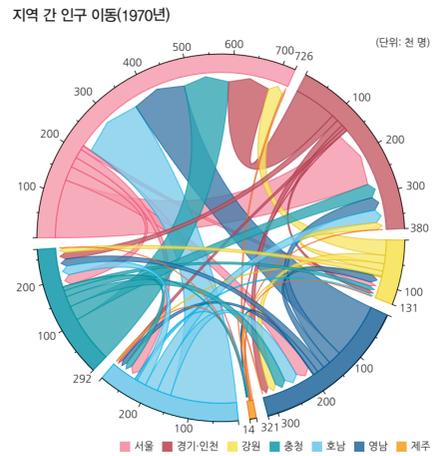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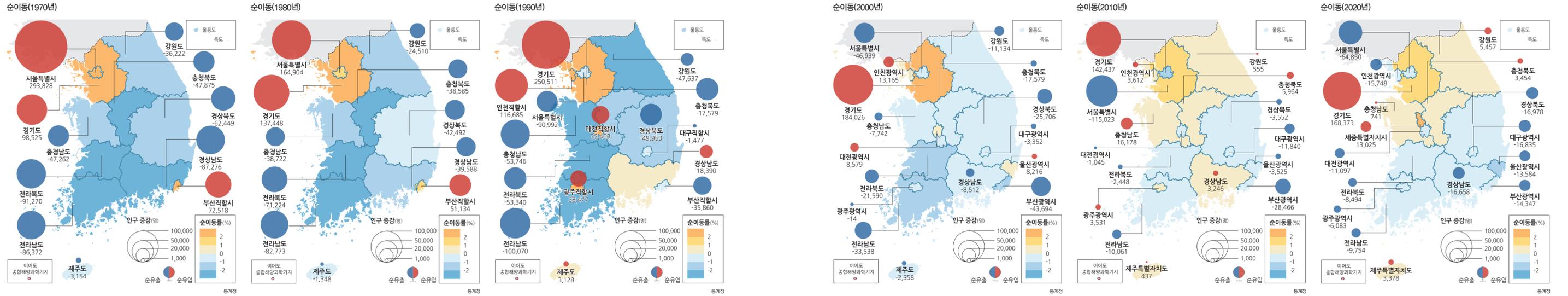
인구 증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경기(340%), 세종(236%), 인천(205%), 울산(201%) 등이었으며, 인구 증가율이 낮은 시·도는 전남(-45%), 전북(-27%), 경북(-21%), 강원(-18%) 등이었다. 1975년부터 2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3,470만 명에서 5,183만 명으로 약 1,713만 명(19.3%)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1975년 307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1,351만 명으로 1,044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동 기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의 약 61%에 해당한다. 전남의 경우 1975년에는 325만 명이던 인구가 2020년 179만 명으로 약 146만 명 감소하였으며, 그로 인해 1975년 전국 인구 대비 9.4%에 달했던 인구 구성비는 2020년 전국 인구 대비 3.5%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시·도 인구 변화(1975년, 2020년)

	1975년		2020년		1975-2020년		1975년 대비 2020년 인구 비율	인구 증감 유형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가	증가율		증가(평균 이상)	증가(평균 이하)	감소
<b>전국</b>	34,704	100.0	51,829	100.0	17,125	49.3	149.3			
<b>수도권</b>	10,928	31.5	26,043	50.2	15,115	138.3	238.3	0		
서울	6,889	19.9	9,586	18.5	2,697	39.1	139.1		0	
경기	3,074	8.9	13,512	26.1	10,438	339.6	439.6	0		
인천	965	2.8	2,945	5.7	1,980	205.2	305.2	0		
<b>강원권</b>	1,862	5.4	1,522	2.9	-340	-18.3	81.7			0
<b>충청권</b>	4,471	12.9	5,651	10.9	1,180	26.4	126.4		0	
충북	1,522	4.4	1,632	3.1	110	7.2	107.2		0	
충남	2,204	6.3	2,177	4.2	-27	-1.2	98.8			0
대전	640	1.8	1,488	2.9	849	132.7	232.7	0		
세종	105	0.3	354	0.7	249	236.2	336.2	0		
<b>호남권</b>	6,440	18.6	5,069	9.8	-1,371	-21.3	78.7			0
전북	2,456	7.1	1,803	3.5	-654	-26.6	73.4			0
전남	3,247	9.4	1,789	3.5	-1,458	-44.9	55.1			0
광주	737	2.1	1,478	2.9	740	100.4	200.4	0		
<b>영남권</b>	10,592	30.5	12,873	24.8	2,281	21.5	121.5		0	
경북	3,341	9.6	2,645	5.1	-696	-20.8	79.2			0
대구	2,775	8.0	3,333	6.4	558	20.1	120.1		0	
경남	2,580	7.4	3,349	6.5	769	29.8	129.8		0	
부산	1,517	4.4	2,411	4.7	893	58.9	158.9	0		
울산	378	1.1	1,135	2.2	758	200.7	300.7	0		
<b>제주도</b>	412	1.2	671	1.3	259	62.9	162.9	0		

\*1975년 인구는 2020년 행정 구역 기준 인구임  
\*1975년 세종의 인구는 충남 연기군 인구이며, 1975년 충남의 인구는 연기군 인구를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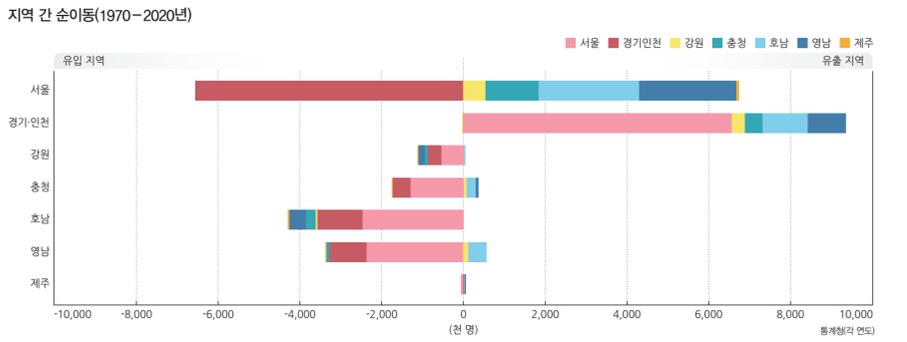
순이동



전임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서울, 경기, 부산 세 지역 순이동이 양(+)이었으며 다른 지역은 순이동이 음(-)을 나타냈다.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수도권, 영남 지역, 광역시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순이동이 증가하였다. 한편, 부산과 서울은 1990년 이후 주변 지역 개발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게 되었다. 2000년 이후로 전남, 전북, 경북 등에서는 그간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순이동률의 절댓값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0년 이후로는 충청과 강원도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1970-2020년의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호남, 영남, 충청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의 이동이다. 호남, 영남, 충청에서의 서울로의 이동은 특히 1970-1990년대에 두드러졌으며,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의 이동은 1990년대 이후에 두드러졌다. 호남, 영남, 충청은 50년 동안 수도권으로 860만 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호남-357만, 영남-330만, 충청-174만), 그중 71%에 해당하는 614만 명이 서울로의 유출이었다. 그 기간 동안 서울은 경기와 인천에 655만 명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경기-597만, 인천-5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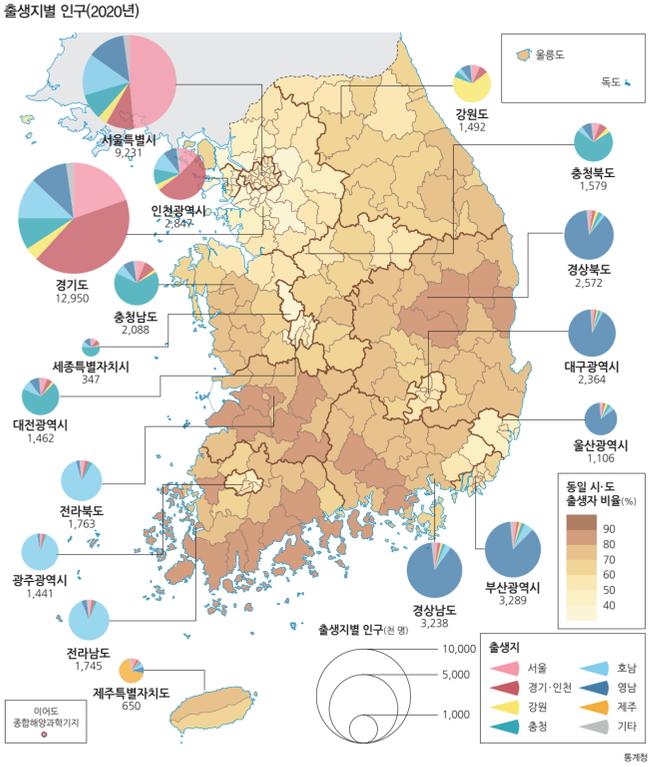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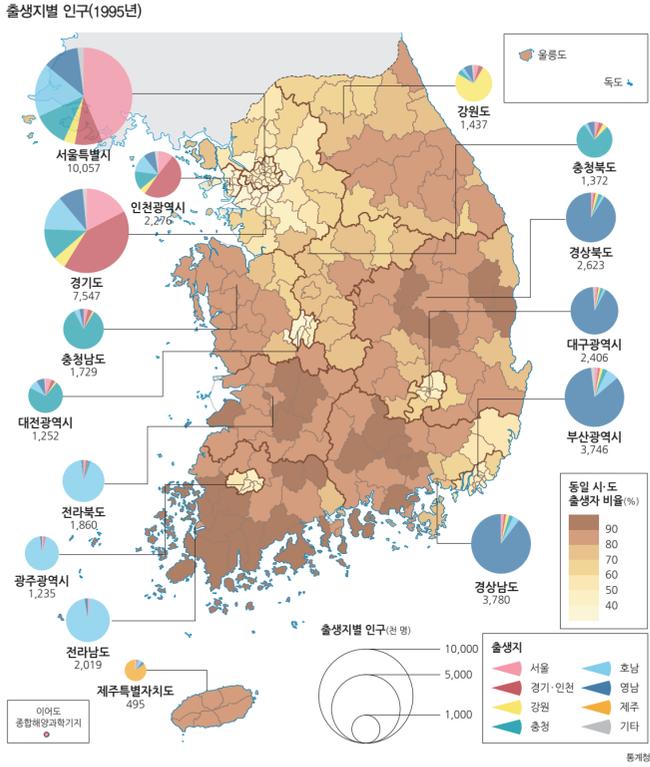
시기별로 순이동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은 1990년대부터 순유출 지역이 되었으며,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은 전 시기, 전 지역에 대해 순유입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충청과 제주 등지에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강원은 2000년대까지는 순유출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순유입이 되고 있으며, 순유입에는 수도권과 영남에서의 순유입이 크다. 호남의 경우 2010년대 영남에 대해 순유입을 기록할 것을 제외하면 전 기간 전 지역에 대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영남은 1970-1980년대 수도권에 대해서는 순유출이었으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순유입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충청에 대해서도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는 1980년대까지는 순유출이 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유입과 유출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전 지역에 대해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순이동(1970-2020년)

		수도권	지역							합계	
			소계	서울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수도권	소계	타권역에서 전입	-	-	-	3,447	8,317	8,894	9,878	579	31,116
		타권역으로 전출	-	-	-	2,573	6,578	5,321	6,582	536	21,590
	순이동	-	-	-	874	1,739	3,573	3,296	43	9,526	
	서울	타시·도에서 전입	-	-	14,370	1,749	4,284	5,487	5,975	353	32,218
		타시·도로 전출	-	-	20,917	1,206	2,984	3,022	3,597	288	32,014
		순이동	-	-	-6,547	544	1,299	2,465	2,379	64	204
타시·도에서 전입		-	-	20,917	-	1,698	4,033	3,408	3,903	227	34,185
경기-인천	타시·도로 전출	-	-	14,370	-	1,368	3,593	2,299	2,986	248	24,863
	순이동	-	-	6,547	-	331	440	1,109	917	-21	9,322
강원도	타시·도에서 전입	2,573	1,206	1,368	-	547	258	859	24	4,261	
	타시·도로 전출	3,447	1,749	1,698	-	627	224	990	26	5,315	
	순이동	-874	-544	-331	-	-80	34	-131	-2	-1,053	
충청권	타권역으로 전입	6,578	2,984	3,593	627	-	1,220	1,827	67	10,319	
	타권역에서 전출	8,317	4,284	4,033	547	-	989	1,767	70	11,691	
	순이동	-1,739	-1,299	-440	80	-	230	59	-3	-1,372	
호남권	타권역으로 전입	5,321	3,022	2,299	224	989	-	1,558	139	8,232	
	타권역에서 전출	8,894	5,487	3,408	258	1,220	-	1,987	165	12,525	
	순이동	-3,573	-2,465	-1,109	-34	-230	-	-429	-26	-4,292	
경상권	타권역으로 전입	6,582	3,597	2,986	627	1,767	1,987	-	274	11,600	
	타권역에서 전출	9,878	5,975	3,903	859	1,827	1,558	-	279	14,401	
순이동	-3,296	-2,379	-917	131	-59	429	-	-5	-2,801		
제주도	타시·도에서 전입	536	288	248	26	70	165	279	-	1,076	
	타시·도로 전출	579	353	227	24	67	139	274	-	1,083	
순이동	-43	-64	21	2	3	26	5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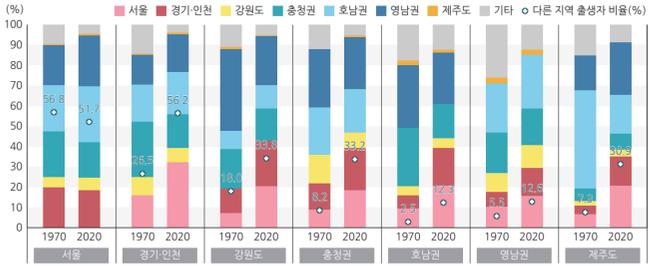
출생지별 인구



지역별 출생자와 거주자(1970년, 1995년, 2020년)

	1970년		1995년		2020년	
	출생	거주	출생	거주	출생	거주
전국	31,435	31,435	43,836	43,836	50,162	50,162
수도권	5,878	18.7	12,086	27.6	19,880	45.4
서울	2,654	8.4	6,490	14.8	10,057	22.9
경기-인천	3,224	10.3	5,596	12.8	9,823	22.4
강원도	1,886	6.0	2,237	5.1	2,252	4.5
충청권	5,139	16.3	6,200	14.1	6,435	12.8
호남권	7,407	23.6	8,549	19.5	5,114	11.7
영남권	10,073	32.0	13,634	31.1	12,556	28.6
제주도	377	1.2	529	1.2	611	1.2
기타	675	2.1	600	1.4	980	2.0

다른 지역 출생자의 지역별 구성 비율(1970년, 2020년)



출생지 유형별 비율(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		다른 시도 (기타 포함)	2010년		다른 시도 (기타 포함)	2020년	
	동일 시도	다른 시·군·구		동일 시도	다른 시·군·구		동일 시도	다른 시·군·구
전국	37.0	17.7	45.3	40.6	12.8	46.6	41.4	11.6
동부	31.2	18.8	50.0	37.8	12.5	49.8	39.7	11.0
중부	53.9	14.8	31.2	48.3	14.7	37.0	45.3	14.0
남부	63.8	12.7	23.5	58.1	13.7	53.0	41.3	13.5

인구 이동으로 인해 출생지 기준의 인구와 거주지 기준의 인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70년에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사람은 18.7%에 불과했으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28.2%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8.4%)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17.6%)이 2배 이상 높아 서울이 인구 이동의 대상지임을 알 수 있다.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이 33.6%로 높아졌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49.9%에 달하고 있다. 반면, 1970년 기준으로 호남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은 23.6%로 영남에서 출생한 사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2020년에는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16.3%)과 비슷한 16.8%로 줄어들었다. 또한, 2020년 호남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9.9%에 이를 만큼 축소되어, 호남에서 출생한 사람의 41% 정도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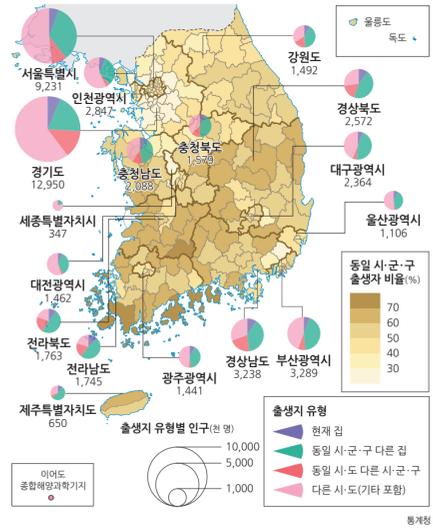
다. 다른 지역 출생자 비율의 합을 100%로 가정하고 출생 지역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이동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영호남 출생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경기-인천의 경우 서울 출생자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1970년에는 인접한 시·도의 출생자 비율이 높았으나, 2020년에는 다른 지역 출생자 중 수도권 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 수준에서도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양상이 잘 나타난다. 시·군·구가 속해 있는 시·도에서 출생자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1995년 92개(전국 232개 시·군·구의 40%)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8개(전국 229개 시·군·구의 12%)로 줄어 들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출생자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세종,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군·구가 속한 시·도 출생자의 비율이 낮은 지역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과 2020년의 지역별로 거주자 중 다른 지역 출생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로 인구 유출이 많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다른 지역 출생자 비율이 높아졌다. 2020년 기준 경기-인천의 다른 지역 출생자 비율은 50%를 넘고 있으며, 강원도, 충청권,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 출생자 비율이 30%대이지만, 영남과 호남은 10%대이

출생지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태어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동일 시·도 내 다른 시·군·구 순으로 많다. 출생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인 비율은 동부가 낮고, 남부가 높다. 동일 시·군·구 내 인구 비율의 변화 양상 역시 동부와 남부의 상반된 추세를 동부는 그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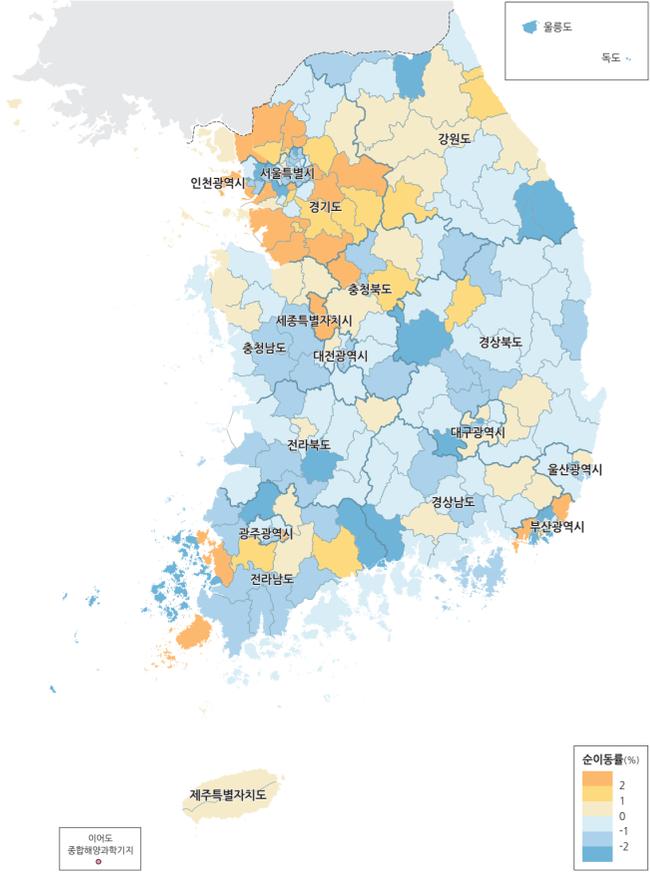
출생지 유형별 인구(2020년)



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부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남부의 동일 시·군·구 내 출생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령 인구의 사망자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동부의 동일 시·군·구 내 출생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과거보다 도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출생자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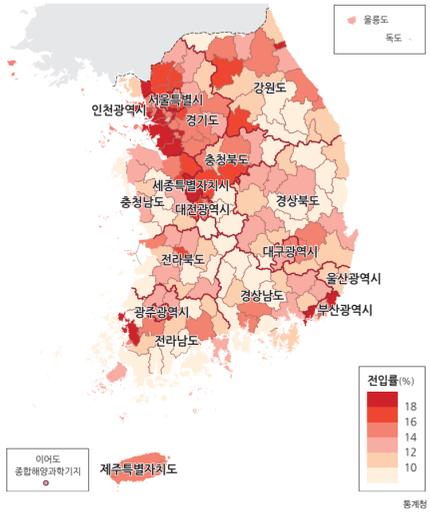
전출입

순이동률(2020년)



2020년 우리나라의 연간 이동자는 774만 명에 이른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의해 인구 이동의 변화가 크므로 전입률, 전출률, 그리고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인 순이동률 역시 해마다 변화가 심한 편이다. 대체로 전입률과 전출률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서 높고, 농촌 지역에서 낮다. 2020년 기준 전입률 상위 5개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25.1%), 김포시(24.6%), 서울 강동구(23.0%), 세종시(22.7%), 경기 하남시(22.6%)이고, 하위 5개 시·군·구는 경북 영양군(7.3%), 경남 거창군(7.8%), 충북 단양군(7.8%), 전남 해남군(7.9%), 경북 봉화군(8.1%)이다. 전출률 상위 5개 시·군·구는 경기 광명시(21.4%), 서울 관악구(21.1%), 충남 계룡시(20.8%), 대구 중구(20.7%), 경북 울릉군(19.2%)이고, 하위 5개 시·군·구는 경북 영양군(7.8%), 경남 거창군(8.1%), 충북 옥천군(8.3%), 경남 남해군(8.8%), 전남 완도군(8.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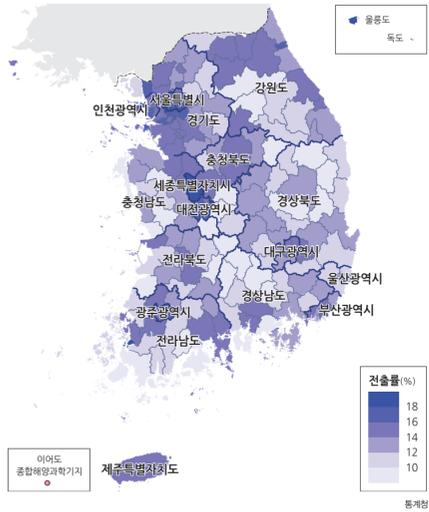
전입률(2020년)



한편 전입지에서 전출자를 뺀 순이동자의 비율인 순이동률은 신규 택지 또는 산업 개발 지역이 높은 편이며, 대도시 내 구도심 지역, 산업 위축 지역이 낮다. 전통적인 농촌 지역 역시 순이동률은 음(-)의 값을 나타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상위 5개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8.0%), 경기 김포시(7.8%), 경기 하남시(7.2%), 전남 무안군(6.4%), 부산 강서구(5.7%)이고, 하위 5개 시·군·구는 인천 부평구(-3.3%), 전남 광양시(-3.4%), 전북 임실군(-4.8%), 경북 울릉군(-5.6%), 경기 광명시(-6.0%)이다.

이동자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 이동자가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이동자가 많다. 20대와 30대는 이동률이 각각 25.5%와 23.2%로 다른 연령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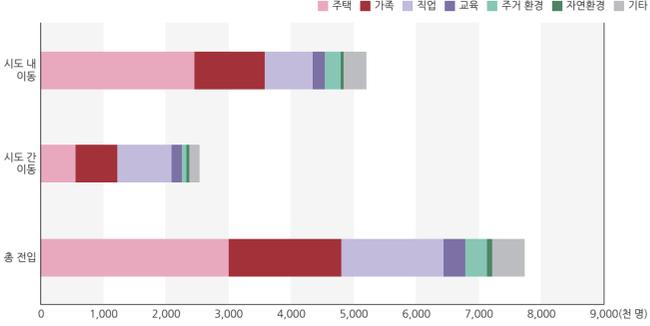
전출률(2020년)



성별, 연령별 이동(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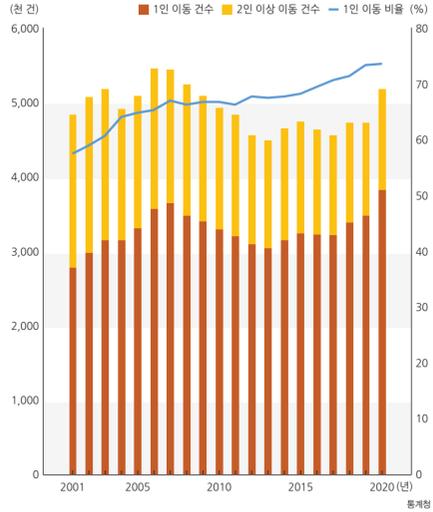
전입 사유별 이동(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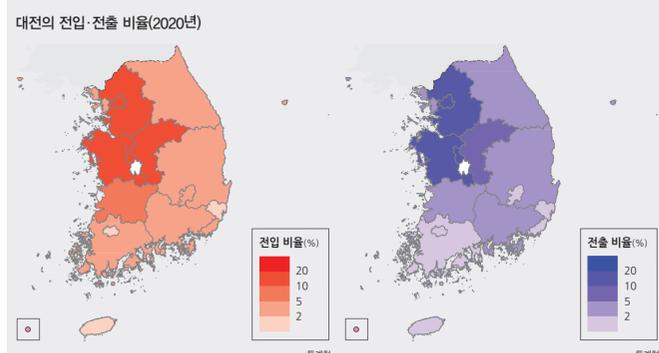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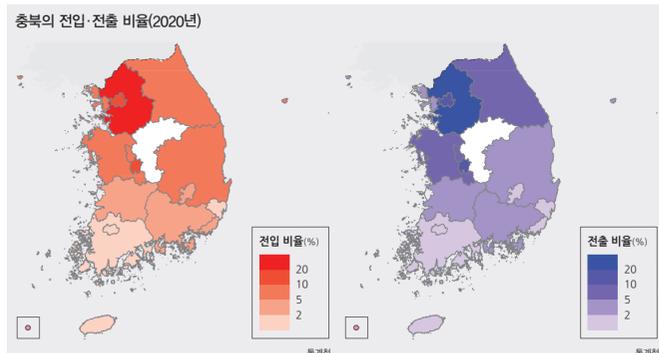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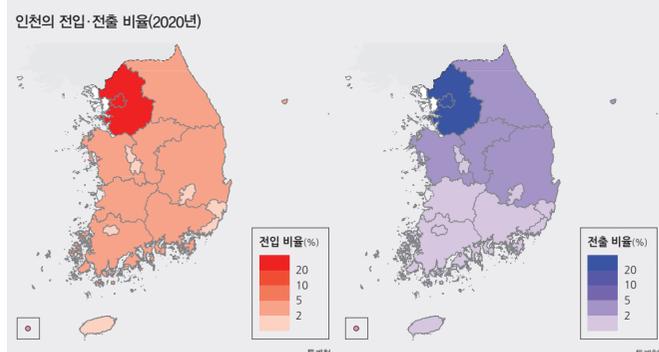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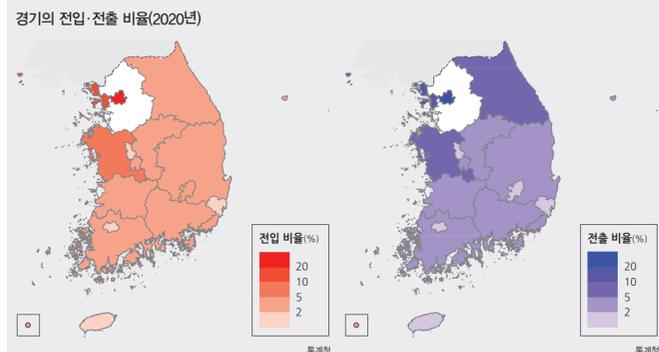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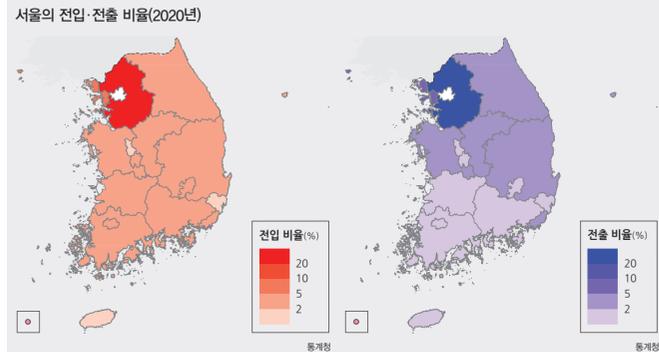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동자 역시 전체 이동자의 43%에 해당하는 334만 명에 달해 인구 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 사유로는 시·도 내 이동에서는 주택-가족-직업 순이었으며, 시·도 간 이동에서는 직업-가족-주택 순이었다. 다만 시·도 간 이동 중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이유로는 주택을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했다.

전입 건수는 2020년 518만 건으로 전입 건수당 1.49명이 이동하고 있으며, 가구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평균 이동 규모 역시 점점 소규모화되어가고 있다. 한편 전체 전입 건수 중 1인 이동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인 이동 건수는 전체 이동의 74%에 달하는 383만 건에 이르고 있다.

전입 규모별 전입(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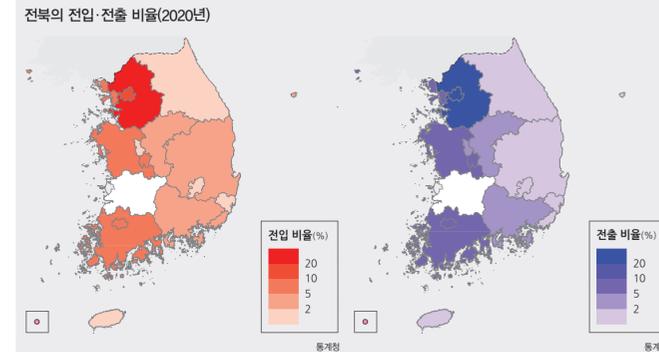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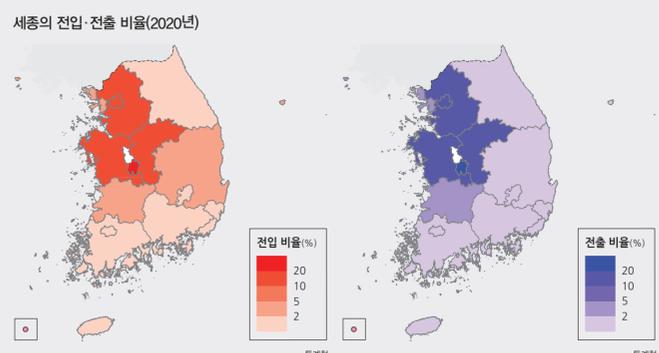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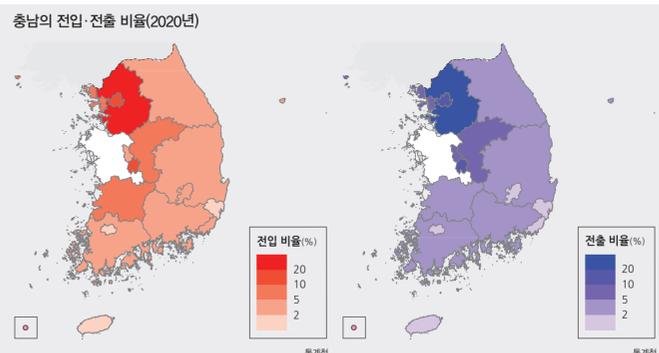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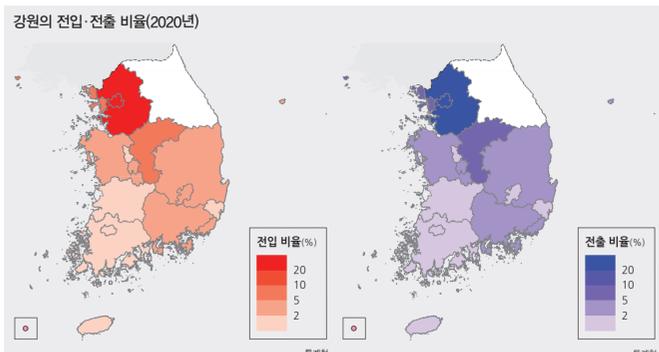


시·도별 전출입



시·도 간 전입과 전출(2020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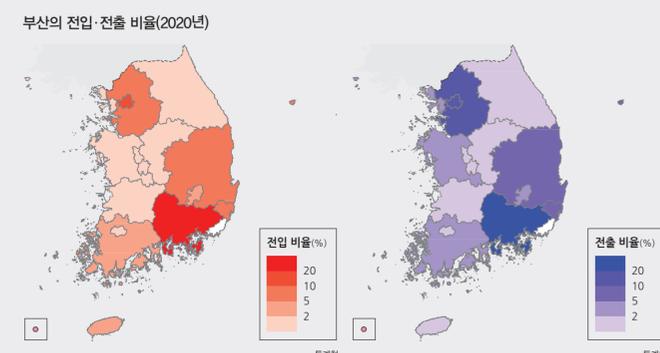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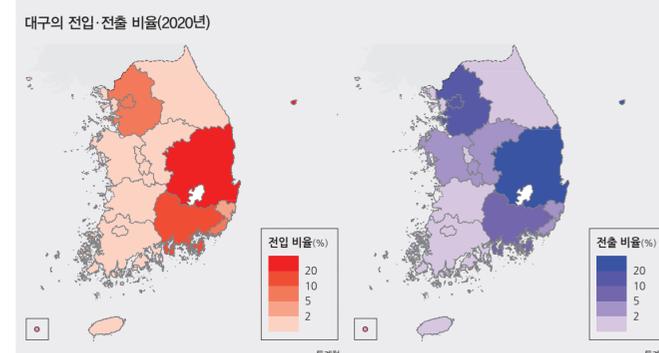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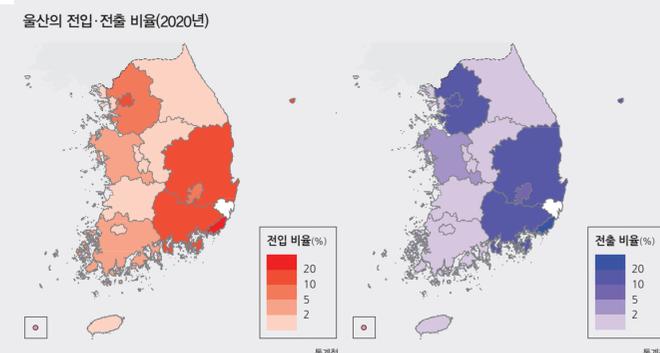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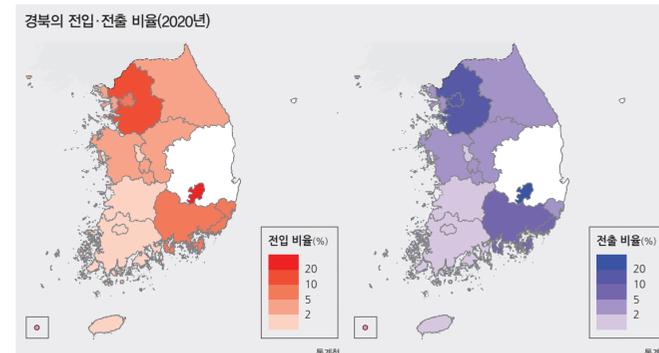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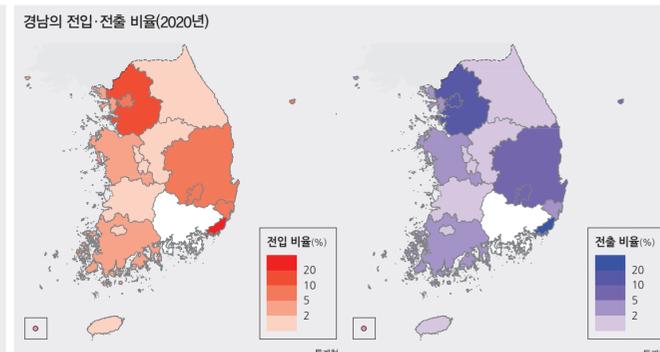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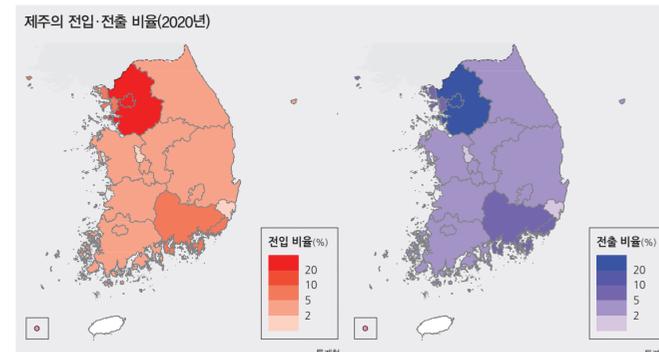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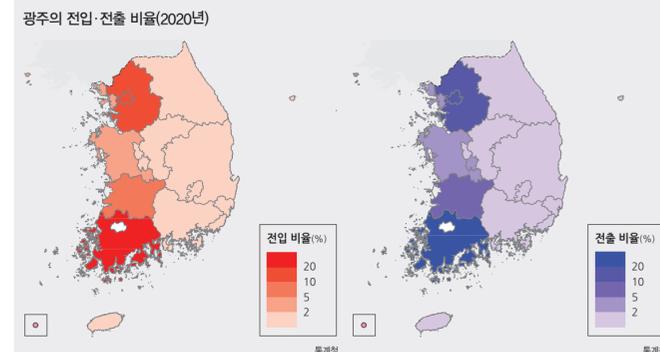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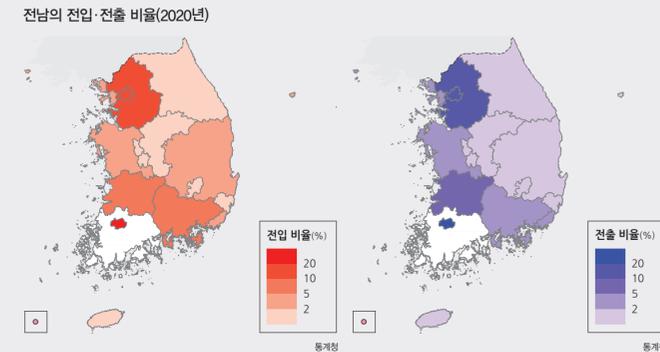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순이동
서울	510	575	-65
부산	122	136	-14
대구	91	108	-17
인천	147	163	-16
광주	68	74	-6
대전	82	93	-11
울산	40	54	-14
세종	49	36	13
경기	705	536	168
강원	82	77	5
충북	83	79	3
충남	124	123	1
전북	63	71	-8
전남	88	98	-10
경북	121	138	-17
경남	124	141	-17
제주	37	33	3



2020년 시·도 간 전출입에 의하면 경기, 세종, 강원, 충북, 제주, 충남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입 지역이고 나머지 시·도는 순유출 지역이다. 17개 시·도에서 다른 시·도에서의 전입자와 다른 시·도로의 전출자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시·도별 인구 이동의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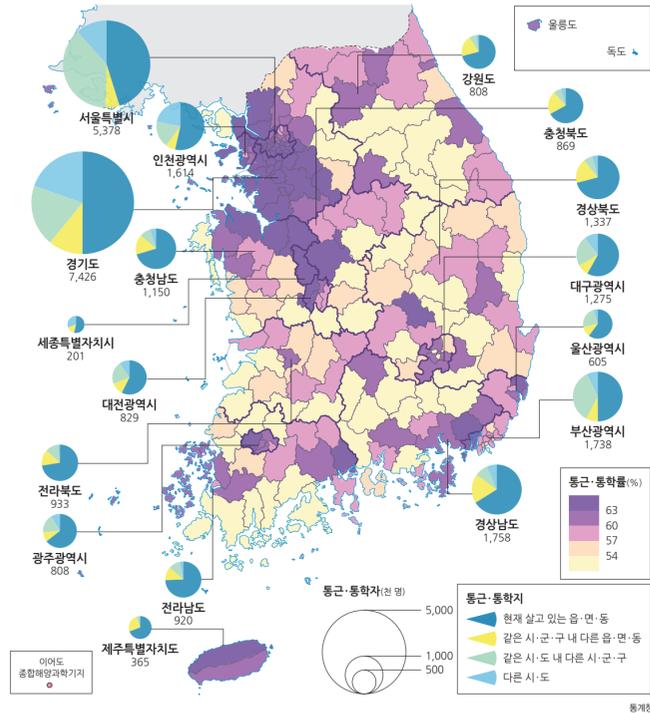
수도권의 유출입은 수도권 내에서의 유출입이 많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유출입을 살펴보면 유입 중 영남과 호남의 비율이 과거처럼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유출은 충청과 강원 지역으로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의 유출입이 크며, 인접한 충북과의 유출입이 많은 편이다.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및 충청권 내에서의 유출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권의 경우 강원, 충북, 영남과의 전출입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남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및 인접 시·도와의 전출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수도권 및 경남과의 전출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한 인구 유출입 지역은 수도권 및 인접 시·도임을 알 수 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경우 인구 유출 중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50%를 넘지만,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의 경우 인구 유출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 비율이 20~30%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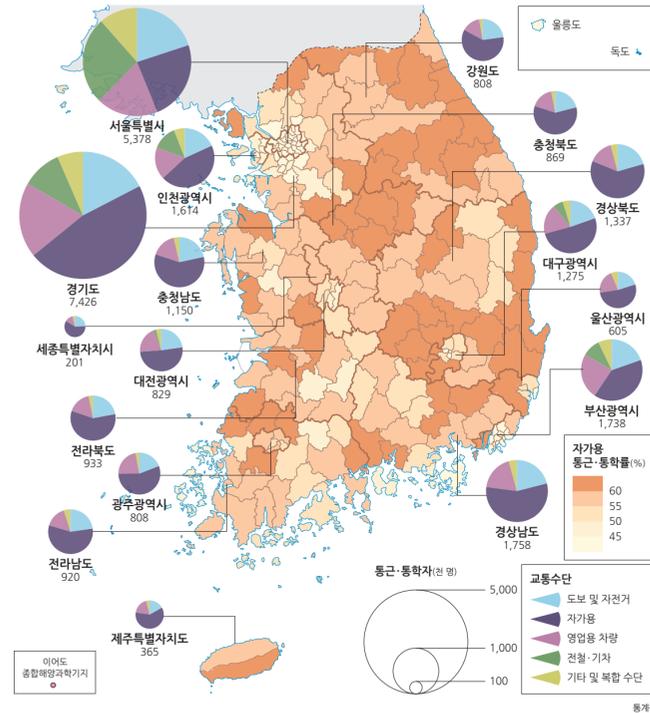


## 통근과 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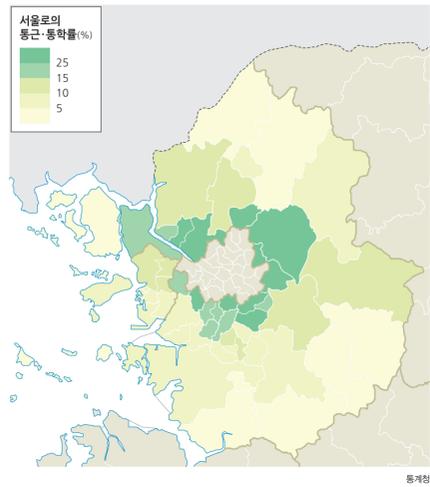
통근·통학률(2020년)



교통수단별 통근·통학률(2020년)



서울로의 통근·통학률(2020년)



2020년 전국 12세 이상 인구 4,534만 명 중 61.8%인 2,801만 명은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이 중 2,329만 명은 통근자이며, 473만 명은 통학자이다. 지역별로는 면부, 읍부, 동부 순으로 통근·통학률이 높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통근·통학률이 높다. 20대 남성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여성보다 통근·통학률이 낮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통근·통학률이 급격히 감소한다. COVID-19의 영향으로 2015년에 비해 2020년 통근·통학자와 통근·통학률은 모두 감소하였다.

통근·통학률은 수도권 및 지방 중심도시가 높으며, 통근·통학 유형별로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56%),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21%), 다른 시·도(12%), 같은 시·도 내 같은 시·군·구(11%) 순으로 많다.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은 세종, 경기, 인천, 서울 등이 특히 높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비율을 살펴볼 때 경기도 과천시(38%), 하남시(38%), 광명시(36%)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으며, 신도시 지역 역시 그 비율이 매우 높다.

통근·통학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차량(46%), 도보 및 자전거(20%), 버스 등의 영업용 차량(19%), 전철 및 기차(10%), 기타 수단이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통근·통학률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지역별, 성별 통근·통학률(2015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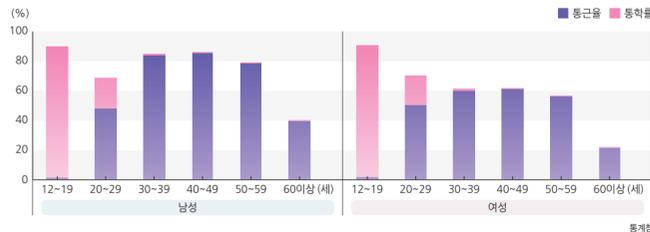
	2015년			2020년		
	12세 이상 인구	통근·통학자	통근·통학률	12세 이상 인구	통근·통학자	통근·통학률
<b>전국</b>	44,040	29,358	66.7	45,340	28,012	61.8
<b>지역별</b>						
동부	35,898	23,914	66.6	36,790	23,170	63.0
읍부	3,894	2,639	67.8	4,392	2,693	61.3
면부	4,249	2,804	66.0	4,159	2,149	51.7
<b>성별</b>						
남성	21,602	16,911	78.3	22,262	15,817	71.1
여성	22,438	12,447	55.5	23,079	12,195	52.8

통계청(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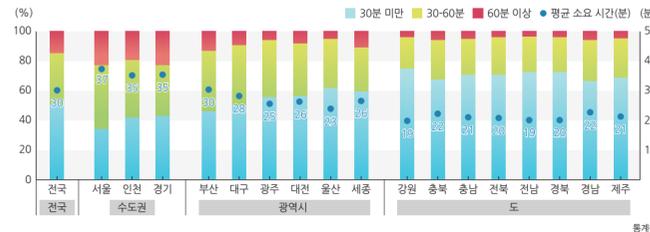
대도시가 낮으며, 수도권의 경우 전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전철이며 그 비율은 26%에 달한다.

한편, 평균 통근·통학 시간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편도 기준 30분이 소요되며 도 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평균 통근·통학 시간이 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편도 기준 60분 이상 소요되는 통근·통학자 비율이 22%이나 되며 90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은 7%에 달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성별, 연령별 통근·통학률(2020년)



시·도별 평균 통근·통학 시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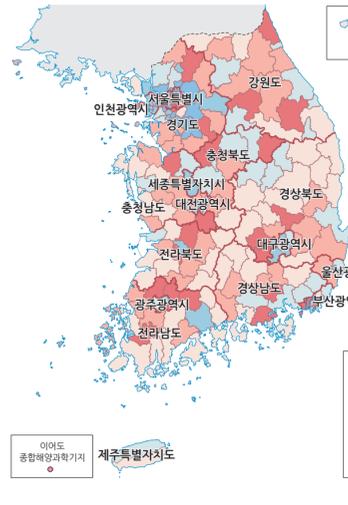


OECD 국가별 출·퇴근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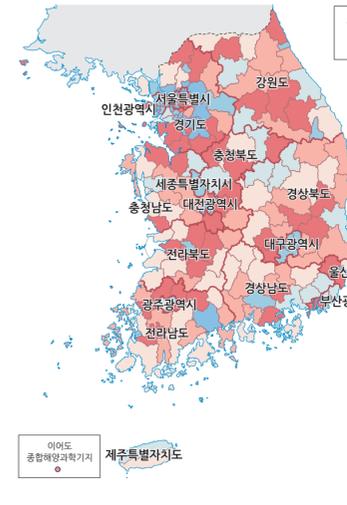


## 주간 인구 지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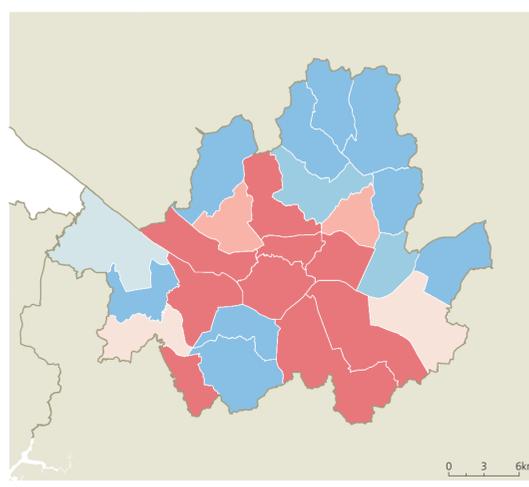
남성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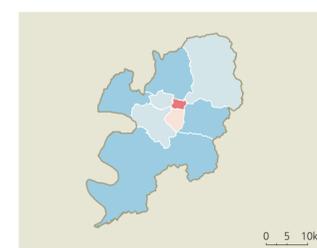
여성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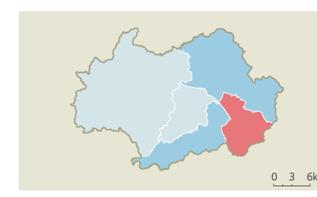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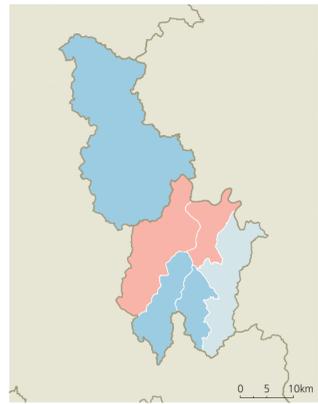
대구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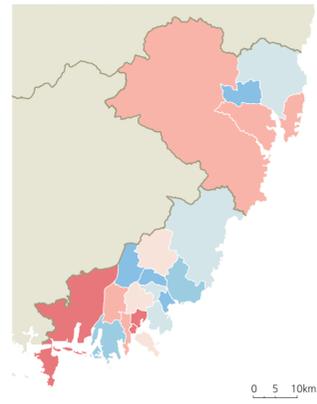
광주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대전, 세종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부산, 울산의 주간 인구 지수(2020년)



대도시의 주간 인구 지수를 살펴보면 대도시 내에서도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는 10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서울의 25개 구 중 12개 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하이며, 은평구(77), 관악구(80), 도봉구(81), 중랑구(81), 양천구(81)는 전국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낮은 5개 시·군·구이다. 반면, 중구(321), 종로구(245), 강남구(193)는 전국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3개 시·군·구에 속한다. 대도시에서는 도심 상주인구의 감소 및 업무 시설 밀집 현상이 나타나는 구 도심 지역 또는 대규모 산업 시설이 위치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주간 인구 지수는 성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의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에서는 여성의 주간 인구 지수도 100을 넘는 경우가 많다. 즉, 통근·통학에 의해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순유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성의 통근·통학률의 여성보다 크기 때문에 남성의 주간 인구 지수는 여성의 주간 인구 지수보다 100을 기준으로 한 편차가 대부분 지역에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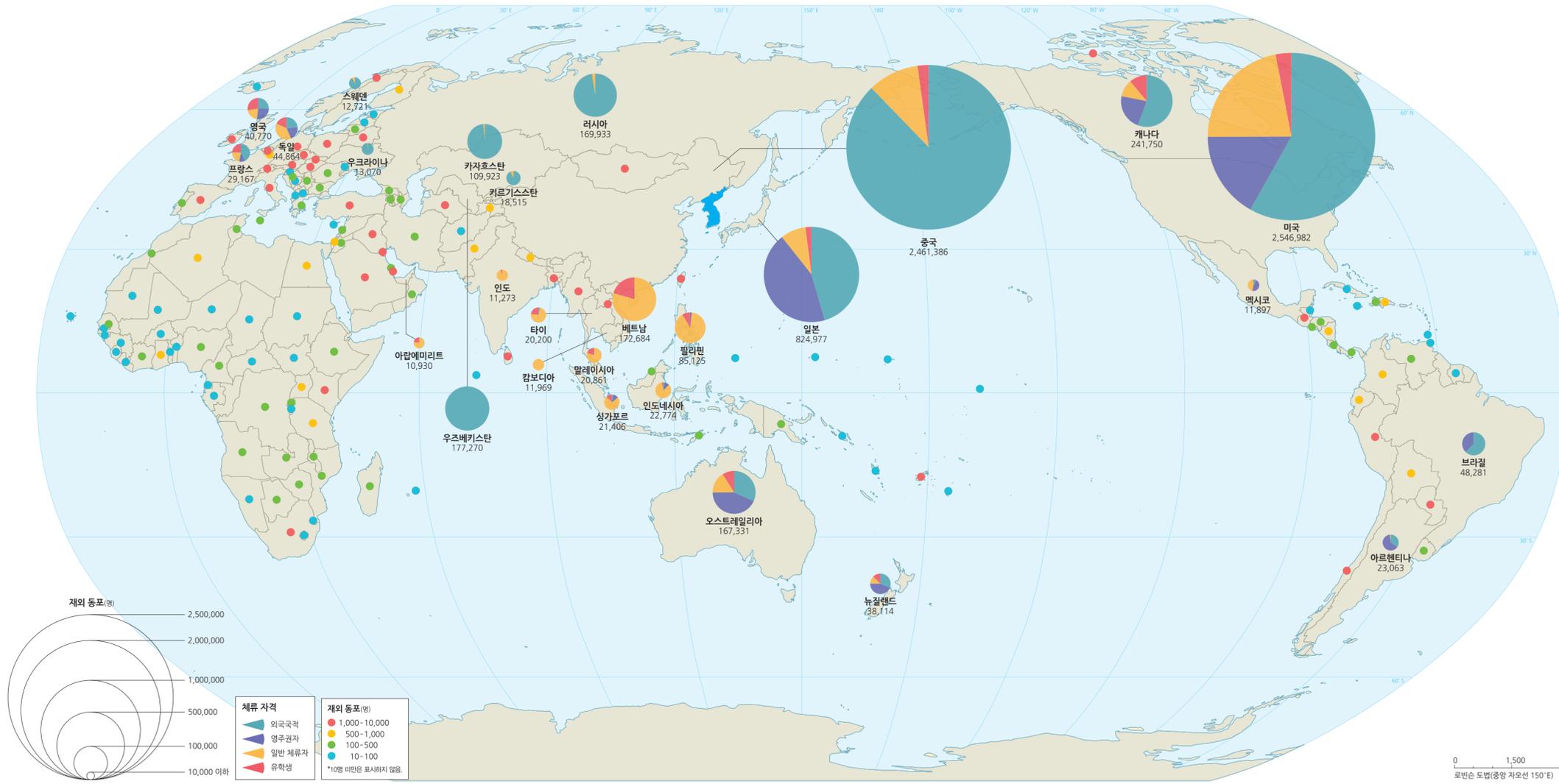
시·도별 상주인구와 주간 인구(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상주인구	유입 인구	유출 인구	주간 인구 지수	상주인구	유입 인구	유출 인구	주간 인구 지수	
<b>전국</b>	49,426	3,593	3,593	49,426	50,162	3,253	3,253	50,162	
<b>남성</b>	24,375	2,389	2,389	24,375	24,737	2,123	2,123	24,737	
<b>여성</b>	25,051	1,204	1,204	25,051	25,425	1,130	1,130	25,425	
서울	9,516	1,500	733	10,284	108.1	9,231	1,436	622	10,045
부산	3,375	102	160	3,317	98.3	3,289	103	123	3,268
대구	2,412	55	170	2,296	95.2	2,364	51	130	2,284
인천	2,803	195	415	2,584	92.2	2,847	187	353	2,681
광주	1,470	29	79	1,420	96.6	1,441	30	70	1,401
대전	1,508	59	91	1,476	97.9	1,462	65	79	1,448
울산	1,128	49	34	1,143	101.3	1,106	42	30	1,117
세종	199	43	32	210	105.4	347	39	62	324
경기	11,972	832	1,539	11,265	94.1	12,950	753	1,459	12,243
강원	1,484	44	21	1,507	101.5	1,492	24	17	1,498
충북	1,544	77	45	1,576	102.1	1,579	65	39	1,604
충남	2,036	176	60	2,153	105.7	2,088	118	54	2,152
전북	1,795	20	17	1,798	100.1	1,763	15	15	1,762
전남	1,756	80	29	1,807	102.9	1,745	69	31	1,783
경북	2,609	191	59	2,741	105.1	2,572	145	54	2,663
경남	3,227	142	109	3,260	101	3,238	112	113	3,237
제주	589	0	0	590	100	650	0	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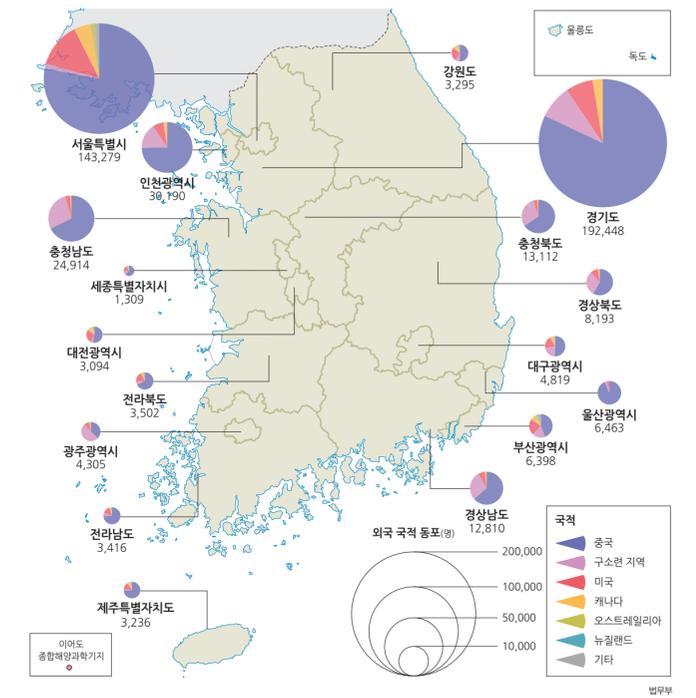
통계청(각 연도)

# 한국인의 국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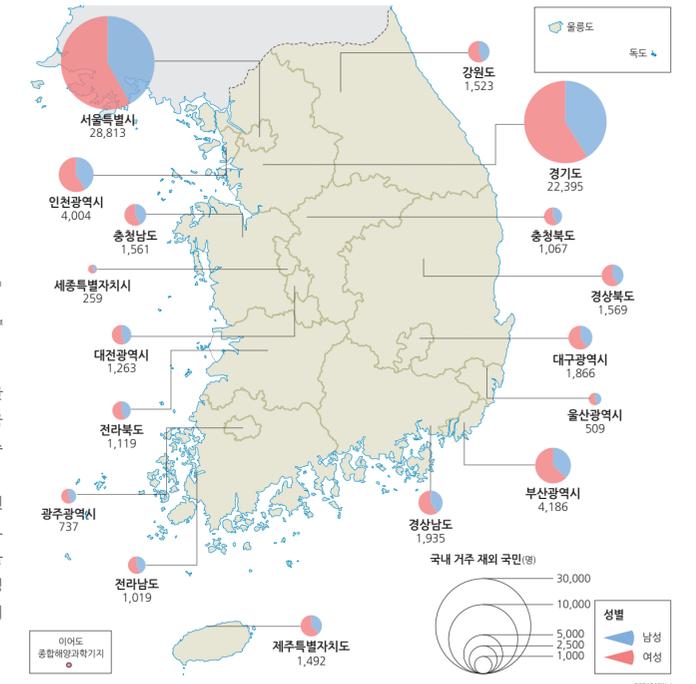
재외 동포 현황(2019년)



외국 국적 동포 거주 신고(2020년)



재외 국민 주민등록(2020년)



재외 동포는 법률상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된다.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2년마다 생산되는 재외 동포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외 동포는 2018년 12월 말 기준 749만 명이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외 동포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481만 명으로 64%이고, 영주권자는 103만 명으로 14%, 일반체류자는 136만 명으로 18%, 유학생은 29만 명으로 4% 정도이다. 미국, 중국, 캐나다, 구소련 지역은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의 비율이 높으며, 일본,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경우 영주권자 비율이 높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보다는 일반 체류자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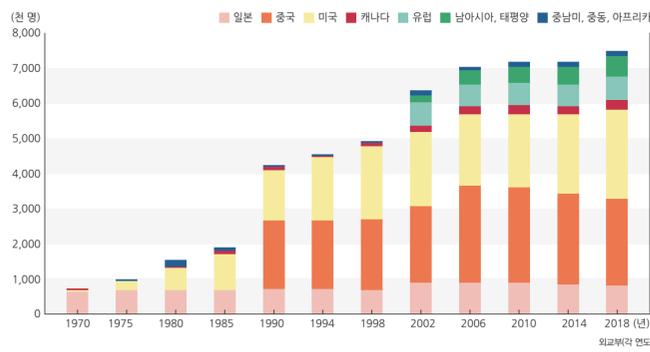
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의 자손 증가로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 동포 통계에 포함되었고, 2000년대에는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역시 동포에 포함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급증하였다. 한편, 196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인구 중 119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이주가 가장 많았으며(84만 명), 캐나다(13만 명), 오스트레일리아(4만 명), 뉴질랜드(3만 명)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해외 이주자가 급감하고 있다.

재외 동포 중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는 약 89만 명이다. 이중 외국 국적 동포가 81만 명, 재외 국민이 8만 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동포 중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는 81만 명 중에서는 중국 동포의 수가 가장 많다. 이들의 국내 체류 자격을 국내 입국 비자의 종류를 통해 살펴보면 재외 동포(F-4),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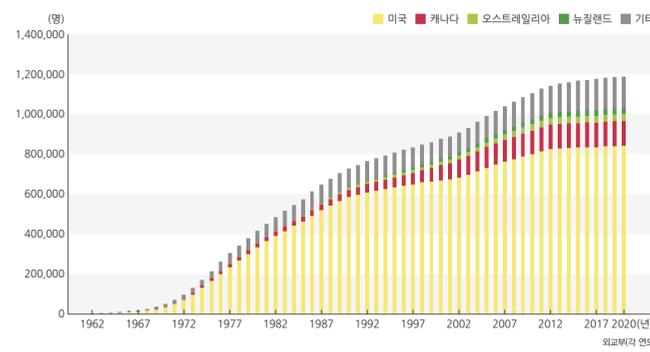
취업(H-2), 영주(F-5), 거주(F-2) 순이다. 이들 중 국내의 거주지를 신고하는 F-4 비자 입국자 47만 명 중 79%에 해당하는 37만 명은 경기(19만 명), 서울(14만 명), 인천(3만 명)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 국적 동포 현황을 살펴보다도 2020년에는 그 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 COVID-19 영향으로 국외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재외 국민 중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재외 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을 통한 신분 확인,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의 경제 활동이 편리하게 된다. 재외 국민 중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때 신고하게 되는데 그 인원은 2020년 기준 8만 명이며 그중 75%에 해당하는 5.5만 명이 서울(2.9만 명), 경기(2.2만 명), 인천(0.4만 명)에 거주하고 있다. 재외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다(성비 71.2). 한편, 2002년 이후 천 명대에서 이천 명대 후반을 기록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역시 2020년에는 229명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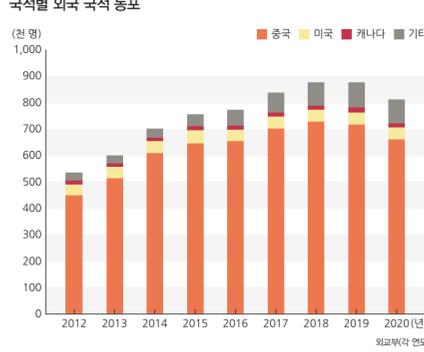
국가별 연도별 재외 동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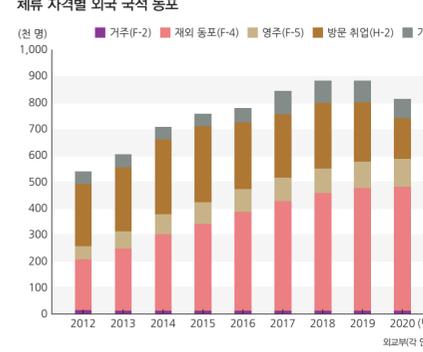
연도별 해외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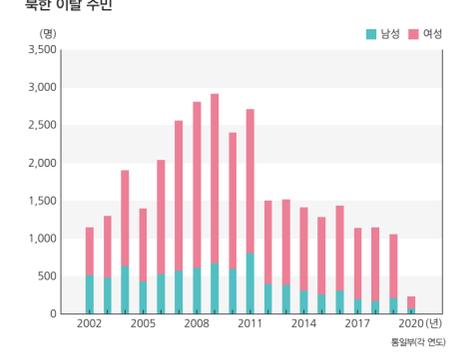
국적별 외국 국적 동포



체류 자격별 외국 국적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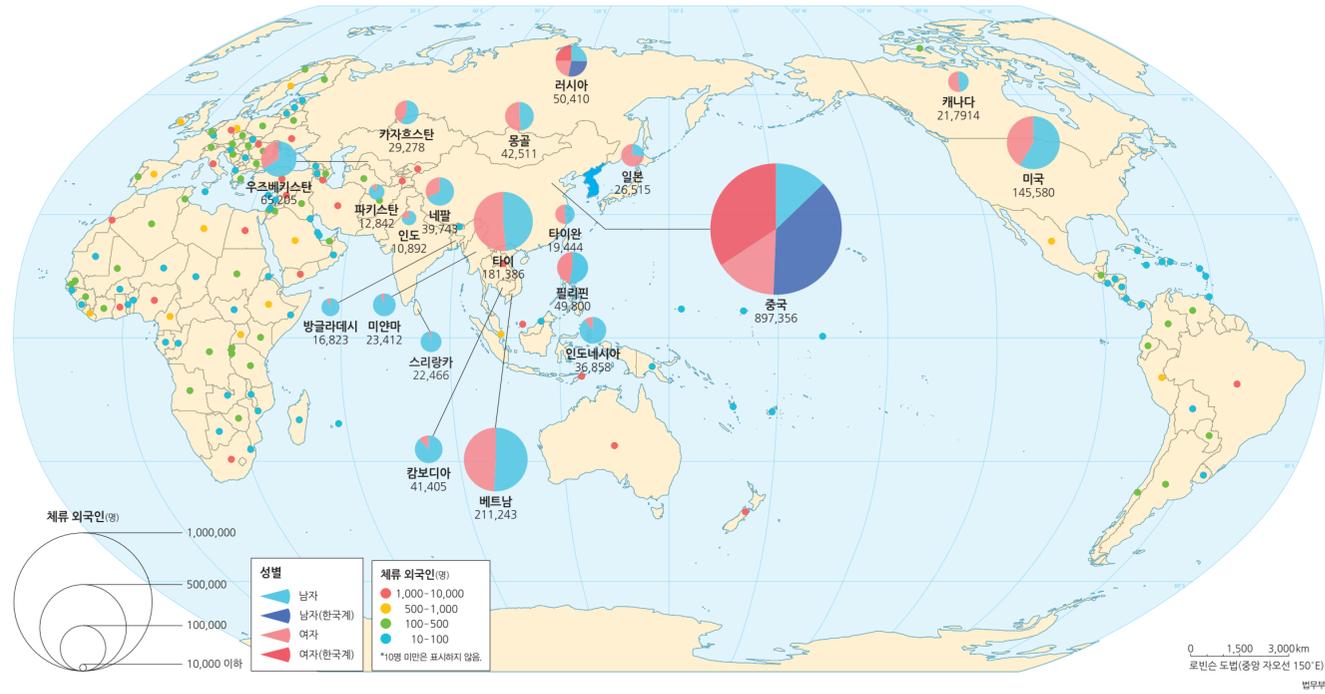


북한 이탈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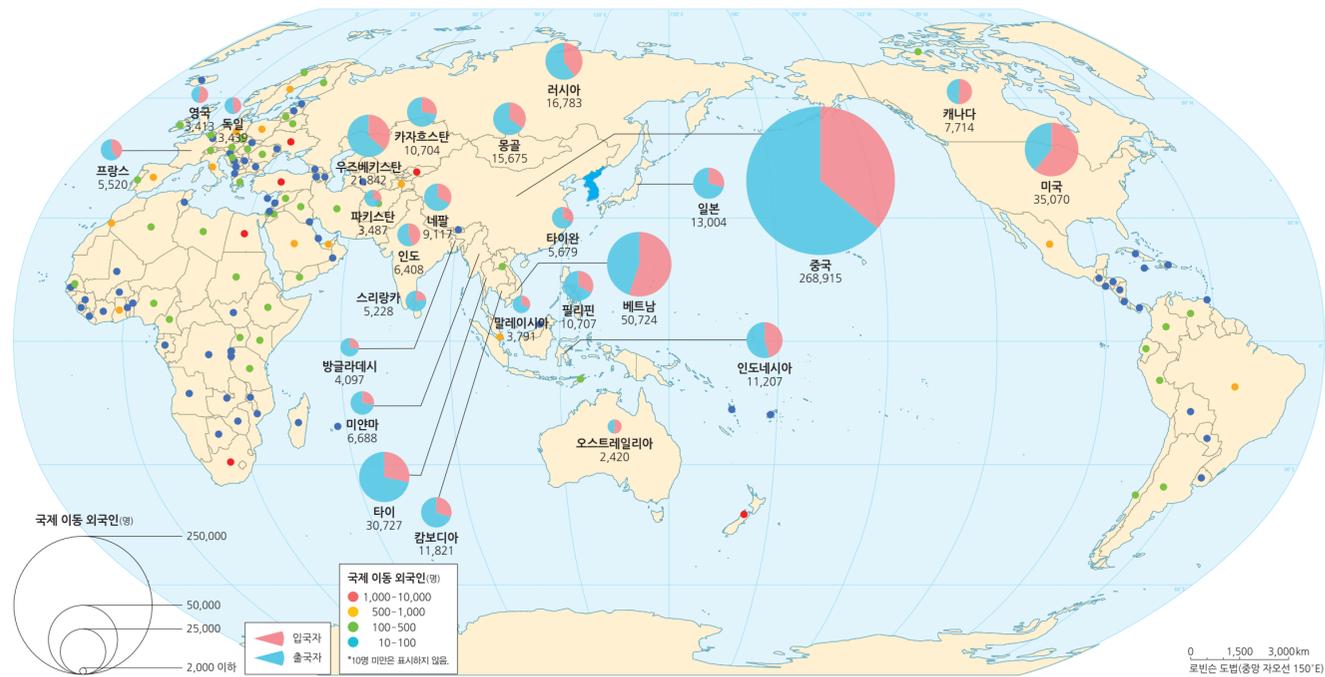


## 외국인의 국제 이동

체류 외국인(2020년)



외국인의 국제 이동(2020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980년대까지는 4만 명 내외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52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48만 명 감소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204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0만 명으로 가장 많고(중국인 25만 명, 한국계 중국인 65만 명), 베트남 21만 명, 타이 18만 명 순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국제 이동을 살펴보면, COVID-19의 영향으로 미국, 베트남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보다 국내에서 자국으로 출국한 사람의 수가 많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은 23만 명이었으며, 국내에서 출국한 외국인은 36만 명으로 13만 명의 순유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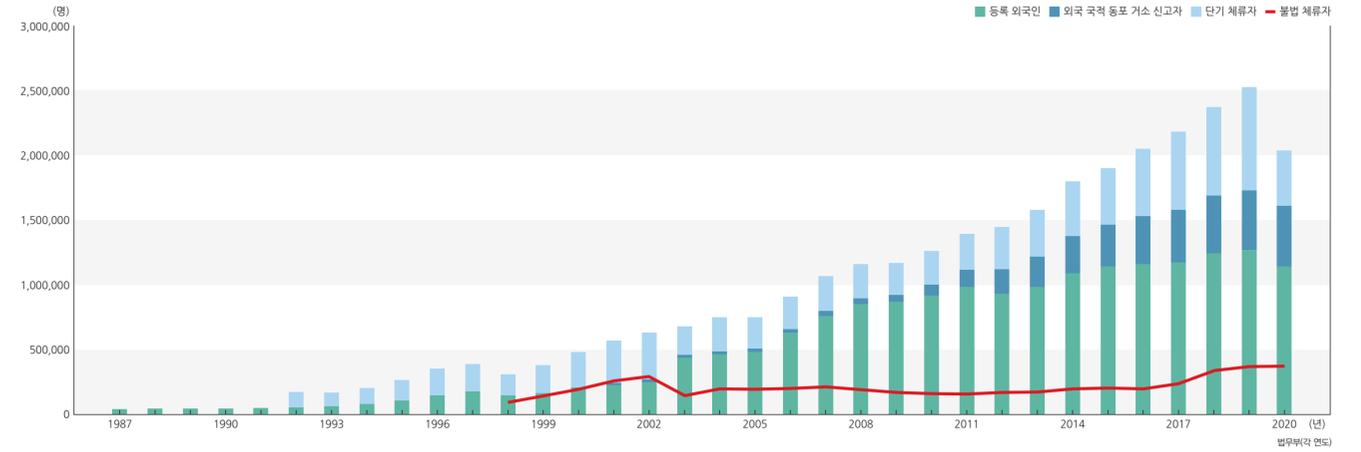
기록하였는데, 2020년은 2000년 이후 외국인 순유출이 가장 많은 해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113만 명, 여자 91만 명으로 남자가 많다(성비 102.7). 연령별로는 25-34세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 국가별, 성별, 연령별 체류 외국인의 구성 비율은 매우 다른데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은 여성이 많은 데 비해 한국계 아닌 중국인은 남성이 많으며, 연령별 구조 역시 한국계 중국인은 50세 이상이 많고, 한국계 아닌 중국인은 50세 미만이 많다. 타이 등 몇 나라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남성이 많으며, 인도네시아 등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남성의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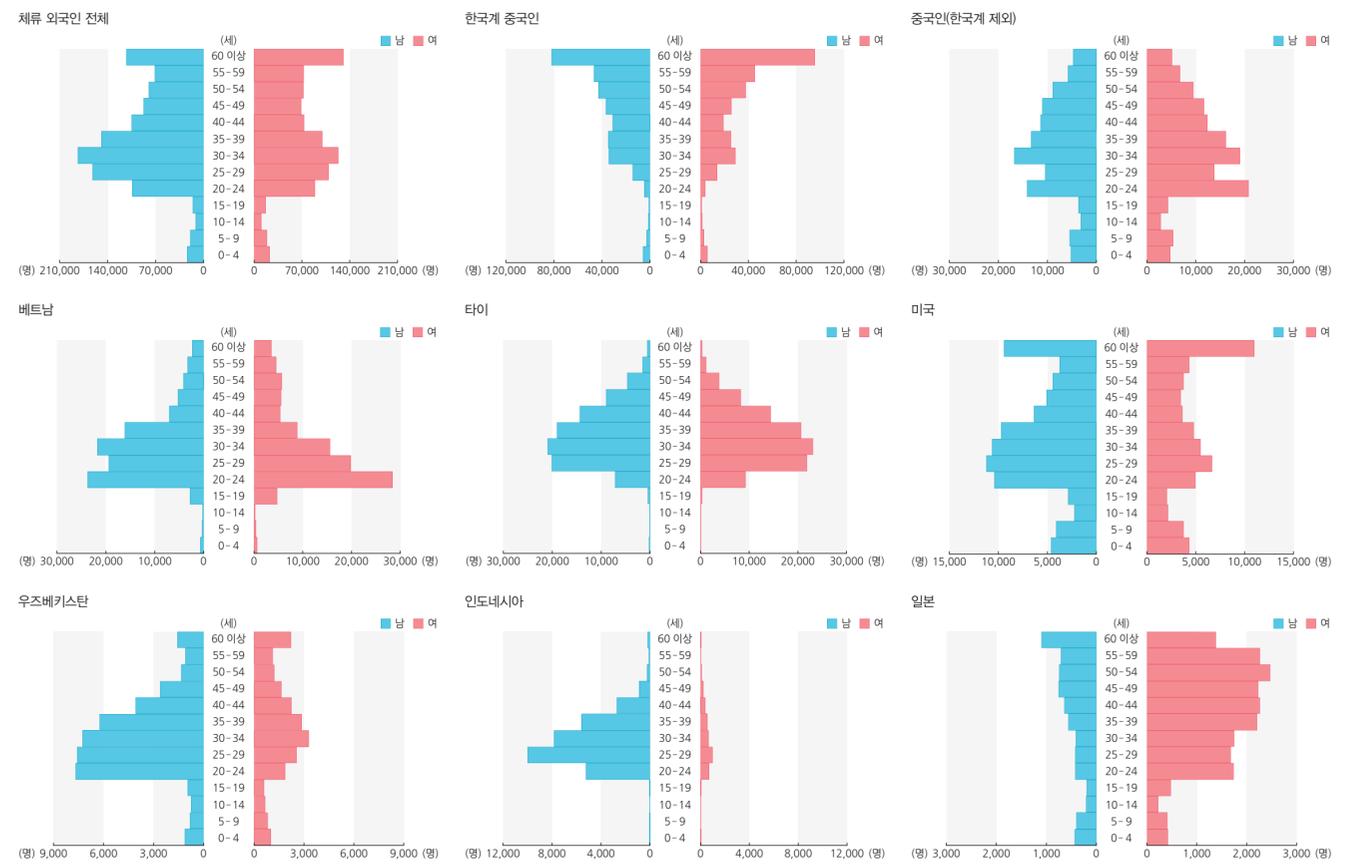
높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 체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비자를 기준으로 한 체류 자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외 동포(F-4), 비전문 취업(E-9), 사증 면제(B-1), 영주(F-5), 방문 취업(H-2) 순이었다.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는 2020년 현재 39만 명으로 추산되며, 불법 체류자는 체류 자격별로 사증 면제(B-1), 단기 방문(C-3), 비전문 취업(E-9) 순으로 많았으며 불법 체류율은 사증 면제(B-1), 단기 방문(C-3), 관광 통과(B-2) 순으로 높았다.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제적 이동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19.3%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1987-2020년)



주요국의 성별 연령별 체류자(2020년)



체류 자격별 체류 외국인(2019년, 2020년)

체류자격	2019년			2020년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재외 동포(F-4)	464,152	1,414	0.3	466,682	1,797	0.4
비전문 취업(E-9)	276,755	46,122	16.7	236,950	47,122	19.9
사증 면제(B-1)	248,753	176,244	70.9	179,332	171,805	95.8
영주(F-5)	153,291	-	-	160,947	-	-
방문 취업(H-2)	226,322	2,095	0.9	154,537	2,896	1.9
결혼 이민(F-6)	131,034	3,350	2.6	133,987	3,731	2.8
단기 방문(C-3)	256,696	81,723	31.8	114,261	78,934	69.1
방문 동거(F-1)	122,886	3,034	2.5	105,382	3,772	3.6
유학(D-2)	118,254	2,833	2.4	101,810	4,692	4.6
일반 연수(D-4)	63,691	19,234	30.2	52,952	23,673	44.7
관광 통과(B-2)	204,541	30,272	14.8	51,977	26,111	50.2
기타	258,281	23,960	9.3	277,258	27,663	10.0
<b>합계</b>	<b>2,524,656</b>	<b>390,281</b>	<b>15.5</b>	<b>2,036,075</b>	<b>392,196</b>	<b>19.3</b>